서효인의 '소설처럼'

그들보다 힘이 센 소설 천선란 '천 개의 파랑'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타이밍이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도 많은 것이 바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은 무생물이고 인쇄물은 요지부동이라 문학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있다. 정치는 세계를 재단하고 평가하여 운용한다. 문학은 사람들의 해석과 수용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정치는 거시적인 가치에서부터 일상의 사소함까지 거의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친다. 문학은 책을 덮어 버리면 그만이고 대체할 수단 또한 많다. 정치는 그것을 대신할 최신의 체제를 고안하기 매우 어렵다. 우리는 정치에는 순응하거나 열의에 차 들뜨지만 문학에는 쉽게 반발하거나 혹은 무관심하다. 여러모로 정치는 힘이 세다. 문학은 하잘것없다.

정치 중에 가장 중차대한 이벤트가 선거이고, 지구의 모든 선거 중에 또한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이 큰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일 것이다. 지금은 개표가 한창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걸 알기에 자꾸만 들여다보는 것이다. 선거권도 없는, 태평양 건너 머나먼 이국의 정치 이벤트를. 지난 선거 예측에서는 너무나 큰 오류가 있었기에 많은 언론이 이번 선거 예측에는 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예상보다는 당선자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 혹은 이익을 분석하는 데 더 정성을 쏟는 듯도 하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대통령과 상원의 권력이 각기 다를 때, 증시는 하락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신소재 사업이 활황일 것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전통적 중공업에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며…… 하는 이런 이야기들.

올해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 수상작 '천 개의 파랑'을 읽고 뜬금없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이유는 이 엄연한 현실이 도통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다. 현실감은커녕 이렇게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아연실색한다.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가의 하락이나 상승보다 더 인간적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많다.

인종과 성별 혹은 성적 지향이나 장애의 유무에 따라 누군가를 혐오해서는 안 된다. 그런 혐오를 일삼는 세력을 비호하거나 그들의 폭력을 방조해서도 안 된다. 꼭 대통령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껏 그러던 사람이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었으니,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기는커녕 팬데믹의 대혼란에 전 지구적으로 휘청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 일이다.

'천 개의 파랑'은 자연스럽지 못한 로봇이 등장한다. 경마장의 기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로봇이지만 어떤 우연에 의해 인지와 학습 능력을 갖는다. 그 능력으로 인해 로봇 '콜리'는 다른 기수 로봇과는 다른 특별함을 갖는다. 파란 하늘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자신의 파트너인 경주마의 감정을 알아챈다.

경주마 투데이는 한때 경마장의 에이스로 활약했으나 부상을 입고 이제는 달릴 수 없다. 빠르지 않은 경주마는 인간에게 활용 가치가 없으므로 죽음으로 내몰린다.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고 자신만의 감정과 감각을 지녔으며, 아직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 어린 말이어도 잔인한 인간은 그 생명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설에는 로봇을 다루고, 로봇과 대화하는 많은 인간이 등장한다. 사고로 남편을 잃고 배우로서 경력도 단절된 보경, 선천적 장애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은혜, 그런 은혜의 동생으로서 표현하지 못할 소외감을 느껴온 연재, 연재의 친구가 되어 준 지수, 그리고 그들 곁의 좋은 어른들이 있다. 그런 인물들은 SF라는 형식답게 로봇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해결한다. 행복했던 기억을 복원하고, 자유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곁의 누군가와 함께 천천히 나아가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리하여 천 개의 파랑을, 모두 다르지만 다들 아름다운 파랑을 발견하게 된다.

좋은 SF 소설이 거의 그렇듯이 '천 개의 파랑' 또한 미래의 기술을 거쳐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온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어제의 소설은 내일의 희망을 말하지만, 오늘의 정치는 다시 절망을 들이밀고 있다. 이 절망 속을 버티게 하는 게 소설이라면, 어쩌면 문학은 정치보다 힘이 센 건지도 모를 일이다.

의료칼럼

환절기, 호흡기 건강 챙기자

김 민 성
수완청연한방병원장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霜降)이 지나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며칠 남지 않았다. 요즘 같은 환절기엔 날마다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더해 일교차도 커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해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보통 갑자기 코안이 간질간질하면서 재채기를 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콧물이 나오며, 코가 막혀 숨쉬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증상이 심해지면 눈이나 목 안이 따갑고 간지러우며, 머리가 아파 오고 냄새를 맡지 못하면서 식욕이 떨어진다. 또한 코의 염증이 부비동염으로 발전하거나 귀로 파급돼 중이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갑작스런 큰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환절기 동안 건강을 지켜야 한다.

환절기의 큰 일교차는 비염 환자에게 더욱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코는 외부 공기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으로써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코에서부터 덥혀 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적당한 온도·습도로 폐에 전달하게 된다. 코는 외부 기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알레르기성 및 비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두 환자군 모두 따뜻한 환경에 있다가 차가운 환경으로 접어들었을 때 처음 30분, 차가운 환경에 있다가 따뜻한 환경으로 접어들었을 때 처음 30분 동안 코 막힘에 대한 주관적인 증상 및 객관적인 지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아침에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일어나면서 차가운 공기를 접할 때, 따뜻한 실내에 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낮아진 외부와 접했을 때 증상이 잘 나타난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휴대하기 편한 여분의 옷을 입어 기온 변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마스크를 써 주는 것도 호흡기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한의학에서 가을은 양기가 급격히 내려가고 음기가 뚜렷해져서 기온의 변화가 급격해진다. 가을의 차고 건조한 기운은 자꾸 기침이 나오고, 입안을 마르게 하는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코와 목 기관지 점막이 말라 건조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투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므로 충분한 수분의 섭취가 중요하다.

커피나 탄산음료 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 6~8잔 정도가 좋다. 한방 건강 차를 마셔주는 것도 좋은데 모과, 유자, 오미자, 대추, 도라지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해 건강도 챙기면서 수분도 보충할 수 있다.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기 위해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적당한 운동과 외부 활동으로 규칙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물론 서늘한 날씨여서 근육이 수축되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부상을 방지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운동 및 스트레칭을 미리 10~20분 정도 시행해 유연성을 서서히 증가시켜 주는 것이 좋다.

외부 활동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몸에서 항염증 및 면역 기능을 돕는 비타민D의 대부분은 햇빛에 노출된 뒤에 합성된다고 한다. 몇몇 연구에서는 비타민D 부족이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는데, 식사를 통해 충분히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외부 활동을 통해 합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루 중 틈틈이 외출 후에는 꼭 손을 씻어 세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다. 또한 되도록 손을 입이나 코에 갖다 대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한다.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평소보다 커지는 환절기이므로 예방하는 습관을 들여 미리 질환을 막는 것이 좋다.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호흡기 질환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예방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원인 인자를 찾아 개선해야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본인의 노력에도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기 고

코로나19 이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양 성 관
동강대학교 교수

올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서너 달 지속되다 끝날 줄 알았는데, 10개월이 훌쩍 지난 현 시점에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며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잠잠해지는 것 같으나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확진자가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세분화해 경제를 살리면서 확진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는 온통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종교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모두 멈춰 버리거나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에 적응해야 했다. 국회의 표결도 비대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거의 모든 식당과 공공장소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했고, 학교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과 학교 현장의 대면 수업이 병행되고 있다. 문화나 스포츠에서도 비대면 중심의 공연이나 경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거리 두기와 각종 모임이 제약받고 있다.

코로나19는 과연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현재의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후에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RNA)가 발생하여 현재의 코로나19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뒤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개개인이 장기적인 틀 속에서 현재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코로나19와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안겨준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자.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이 멈추고,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어 공기가 맑아지고 미세먼지나 황사도 적어졌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손 씻기가 습관화되어 개인의 위생 관리가 잘 되어 감기 등 호흡기 감염 환자가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감염 예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 웬만한 높이는 걸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의도하지 않게 우리에게 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선물로 주었다. 이처럼 건강한 위생 습관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인간 관계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물리적으로 인간 간에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채 집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들.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확진이 의심되어 자가 격리 상태로 2주 동안 꼼짝 못하고 집에서 보낸 아까운 시간들.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울감은 코로나19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더욱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택배와 배달 서비스의 증가로 포장재나 일회용품 등의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스티로폼 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환경 오염의 주범인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을 줄이는 정부 정책과 국민의 협조가 지구가 살리고 인간이 사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社 說

광주글로벌모터스 '시민 감시' 왜 거부하나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돼 자동차공장을 짓고 있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시민의 감시·견제권을 거부하고, 입찰 과정에서 되레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 시민 주도로 출범한 회사인데도 광주시는 물론 시의회의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글로벌모터스는 내년 9월 완공 목표로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연 10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총 5754억 원이 투입된 글로벌모터스는 총 37개 투자자로 구성됐으며, 자기자본금 2300억 원만 보면 광주시(1대 주주)가 483억 원으로 21%, 현대차(2대 주주)가 437억 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454억 원은 외부 투자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모터스가 시민의 견제권을 거부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칫 전국 최초의 지역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특히 483억 원이라는 막대한 광주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규정과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논리를 내세워 시와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글로벌모터스는 지난달 구내식당 입찰공고를 내면서 '2019년도 매출 기준 3000억 원 이상'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형 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실상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배제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글로벌모터스는 지역 업체와 상생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특수법인인 만큼 모든 운영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원전 주변 갑상선암' 주민더러 입증하라니

한빛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장기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들이 그제 국회를 찾아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핵발전소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 주민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인 이들 618명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증언 대회를 개최했다.

한빛원전 인근 126명을 비롯해 월성 94명, 고리 251명, 울진 147명 등이다. 이들은 국내 4대 원전으로부터 평균 7.4㎞의 거리에서 암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9.2년을 살았다. 이들은 이날 암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뒤 호르몬제 알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원전 인근 주민 이진섭 씨는 "10년 전 장모님과 내가 잇따라 암에 걸렸지만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갑상선암까지 발견되니 '원전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공동 소송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 씨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원전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전의 책임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 결과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주민들은 특히 재판부가 피해 사실의 입증 책임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닌 주민들에게 묻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갑상선암과 방사능 피폭의 인과관계 증명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환경 피해 소송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학계에서는 갑상선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환경 재해로 인한 방사선 노출을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원전과 암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부터 실시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백건우의 위로

느릿느릿 걸어 나온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머리가 하얗게 센 일흔네 살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하자 객석은 정적에 휩싸였다. '어린이의 정경' 등 슈만의 곡으로만 레퍼토리를 짠 이날 연주는 화려한 기교나 격렬한 타건(打鍵) 대신, 깊은 울림과 감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다.

마지막으로 '유령변주곡'을 끝내고, 건반에서 손을 뗀 그는 피아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객석도 함께 숨죽였던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춰 버린 듯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은 후 관객을 향해 박수를 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공연은 독주회로는 드물게 앙코르도 없었다. 두 시간 동안 다른 세상에 있다 온 기분이 들었고, 연주회의 여운은 오래오래 남았다.

열 살 때 그리그 '피아노협주곡'을 협연하며 데뷔한 후 64년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던 그다. 이날 연주를 들으며 그를 왜 '건반 위의 구도자'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공연을 보는 내내 어쩔 수 없이 '그녀'가 떠올랐다. 아마도 이날 공연장에 왔던 많은 이들이 그랬을 터다. 결혼 후 45년 동안 항상 '함께'였던 아내 윤정희는 언제부턴가 연주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녀는 알려진 대로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다. 이창동 감독의 '시'(2010)에서 치매 앓는 노인 '미자' 역을 연기하기도 했던 그녀는 촬영 당시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그녀의 투병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전했다. 전남여고 후배인 지인은 40여 년 전 모교를 방문한 윤 씨와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리고 그녀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다.

백건우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살면서 '정말로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음악과 함께 있을 때였다"고 말했다. 어쩌면 장인과 소송까지 벌이며 클라라와의 사랑을 쟁취했지만 정신병으로 환청에 시달리고, 라인강에 투신하고, 자청해 정신병원으로 들어가 생을 마친 슈만도 '음악'을 통해 '살아 있음'을 느꼈을지 모르겠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생각이 드는 가을날, 이제 우리가 그의 연주를 통해 '살아 있음'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